

'97 불교 전파번호부



불교전파번호부 나와

불교방송이 '97 불교전파번호부'를 발간했다. 불교정보의 현대적 구축과 정보공유를 위해 발간된 이 책에는 사찰, 종단, 법인, 언론, 출판 등 주요기관과 신원회, 여행사 등 불교와 관련된 단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알기 쉽게 수록했다.

불교전파번호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제작 보급될 예정이며, 내용의 정확성과 편리함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증보해 나갈 계획이다. 무료 배포. (02)705-5114



전국문화원 '한눈에'

문화체육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 1백81개 지방문화원의 조직과 시설, 주요사업 간행물 연혁 주요인사 등 관련자료를 총망라한 '전국문화원'을 펴냈다. 지방문화원의 소개를 통해 각 문화원간의 정보교환을 도모하기 위해 발간된 이 책에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등 관련 법령 자료와 문화관광 표준안도 함께 실었다. 비매품

寺誌 발간 우리절 알리기 '통로'

9백여 전통사찰중 20여권뿐

사찰에 얽힌 유래와 전설을 비롯 가람의 배치와 모습, 불상, 탑 등에 이르는 유형무형의 갖가지 귀중한 역사와 예술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지(寺誌)다. 최근 <봉은사> 사지 발간을 계기로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한곳에 집대성하는 사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9백여 전통사찰 가운데 사지가 제대로 남아있는 사찰은 손에 꼽을 정도. 그나마 전해내려온 사지도 유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간행된 사지는 20여권. 지난 93년부터 사찰문화연구원이 발간한 <종주사> <보문사> 등 칼라판 사진을 곁들인 현대적 모습의 사지를 비롯 아세아문화사가 지난 77년부터 한문자료를 바탕으로 <만덕사지> <금산사지> <견룡사 유점사본말사지> 등 13권의 '한국사지총서'를 펴냈다. 또 <해인사지>, <적지사지> 등 사찰 자체에서 공들여 펴낸 대형 사지도 있으며 이밖에 한국불교문화원이 펴낸 '한국의 사찰 시리즈'가 있다. 최근 발간된 <봉은사> 사지의 경우 창

최근 나온 '봉은사지'

창건연혁·가람구조 소장문화재 등 총정리

'사지발간 촉매역할'

건 연혁과 가람구조, 문화유산 등을 소개함과 동시에 봉은사 관계문헌과 역대 주지명단, 주요인물, 봉은사 고지도, 그리고 봉은사의 현재모습까지를 담았다. 칼라사진과 함께 쉬운 설명으로 구성된 <봉은사> 사지는 사찰정보안내서 역할까지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비문탁본에서 사찰비품목록에 이르기까지 사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모은 것이 바로 사지'라고 설명하는 아세아문화사 관계영 사무는 "사지는 역사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발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지제작은 사찰 역사의 보존과 전승 측면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불사이기도



◇사지에는 사찰의 연혁과 인물, 소장 문화재 등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담겨있다.

하다. 이러한 사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수집과 검증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지발간에 관심을 가지는 사찰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 대형도서관이나 관련학자 등을 제외하고는 수요자도 별로 없어 소량출판되고 있다. 아세아 문화사는 조만간 14권째인 <해인사지>를 발간할 예정이며, 사찰문화연구원도 꾸준히 사지발간에 힘쓰게

희이다. 사찰문화연구원의 사지 발간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국대 박물관 한상길연구원은 "읽는 책과 보는 책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다 쉽고 대중적인 사지제작으로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유학경험세대 '인도의 오늘' 생생히

내가 알고 싶은 인도 백작출하 지음

인도는 과연 신비의 나라인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인도바람에 대해 '인도를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인도를 제대로 아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내가 알고 싶은 인도>다.

변화하고 있는 현대 인도사회의 실상과 인도인의 실생활에 대해 백작출(경상대) 이광수(부산외대) 김경화(전남대)교수 등 세사람이 인도에서 유학하며 직접 체험한 이야기들을 공



동지술했다. 소형승용차의 증가, 합성섬유의복 착용 등 중산층을 중심으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도인의 일상생활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카스트제도의 잔재들을 하층민

의 삶을 통해 알려주고, 과거 인도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힌두교의 오늘날 모습들을 보여준다. (한길사 1만원)

'불교와 문화'로 제호변경

계간 '다보' 내용 보강 '새롭게'... 신국판으로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 모색과 불교의 본래적 기능인 사회제도를 목표로 발행된 계간 <다보>가 <불교와 문화(97년 봄호 통권 11호)>로 제호를 바꾸고 우리문화 진보를 이루는 총체적인 문화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판형도 기존의 4~6배판에서 신국판으로 변경했다. 이번호는 특집 '전생과 나'에서 문헌사적으로 살펴본 전생과 윤회,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본 최면과 전생요법, 불교윤회설의 의의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전생을 인과론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또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진신이나, 아나나의 '대승불설 비불설론'을 지상논쟁에 부쳤다. '인물포커스' 역사인물 재발견 시리즈 봉공님, 화보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96년 새로이 지정된 성보를 찾아서' 등을 실고 있다.

계간에서 격월간 월간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도 한 <불교와 문화>는 12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불교문화대중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필자 (Author/Editor), 출판사 (Publisher). Lists 10 best-selling books.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대학시절 나는 한국인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적 맥을 이어 온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스님들의 법문과 책 속에서 생로병사와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꾸준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처럼 마음 한 구석에 잠시 남겨 놓고 다뤄주지 못하러 도는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 해답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고, 그 수행의 바탕이 되는 것이 마음 닦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용화 권)는 마음 닦고 참 나(眞我)를 찾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잘 설명해 놓았다.

불교는 생활 속의 종교이고, 처처물물(處處物物)이 부처님 아님이 없고,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을 제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실행하고 싶어도 범부의 지혜로는 밝은 실행법을



김수경 (아주의대 교수·생화학)

'어떻게 경계하고 참마음 낼까' 세상 어둠서 밝음으로 길 안내

물라 허덕이고 있지는 않는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에서는 세상 속에서 밝음을 향하여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기정, 직장 또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다가 문득 봄빛 오르는 푸르른 산을 보게 되면 모든 것 펼쳐 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

그러나 내가 떠나야 할 곳은 번잡한 이 세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의 분별망상, 보물처럼 움켜쥐고 있는 그릇된 이상 탐(貪) 진(瞋) 치(癡)다. 그리하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이 마음을 내는 내가 출가할 곳은 본래의 나 자신에게로일 뿐...

저자 김재웅법사는 밝음을 이룬 스승 백성욱 박사님의 엄격한 책아 속에서 평생을 수행 정진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정갈하게 보여주며, 봄물 차 오르듯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푸르름으로 돌볼어가는 지혜를 펼쳐 보인다.

공부하는 이들이 3천배, 열배, 좌선, 독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속에서 수행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자칫 기복으로 흐르거나, 아상에 집착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경계하여 자유로이 마음을 낼 것인지, 이 책을 읽는 불자들이라면 거듭거듭 마음의 푸르른 떠남을 체험할 것이며 새로워지는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호로 '명사추천 불서 100선'을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께 감사드립니다. 121호부터 '나와 경전'이 연재됩니다.

새로 나온 책

▲여래장 삼부경(원경 역)= 초발심이 성불로 이어지는 중요한 근거는 모든 존재가 여래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불의 근거인 여래장사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래장 삼부경인 <승만경>, <대방동여래장경>, <부증불감경>을 통해 도모하고 있다. (불지사 6천원)

▲도문공과경(道門功課經·유수원 역)=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수행하여 사리가 이루어지는가 등 불가의 여러가지 의문들을 불교·도교경



전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김지장보살, 최치원 등 수행에 진력했던 64 선지식의 다양한 일화와 인연담 등을 담고 있다. (청정 9818천원) ▲백두산(심해숙 지음)=우리의 역사와 더불어 수난을 함께한 민족의 명산인 백두산의

모든 것을 소개한 책. 백두산의 장군봉을 비롯해 백운봉, 천문봉, 철벽봉, 차일봉 등 2천5백미터가 넘는 여러봉우리들이 천지와 함께 어우러진 장관을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대원사 3천5백원) ▲시간속으로 역사여행(표성

훈 지음)=여행전문가 표성훈씨가 국내 역사현장을 몸소 돌아보며 쓴 우리나라 역사전반에 관한 체험 여행서. 이 책은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외국의 문화유산과의 상관관계도 학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규장각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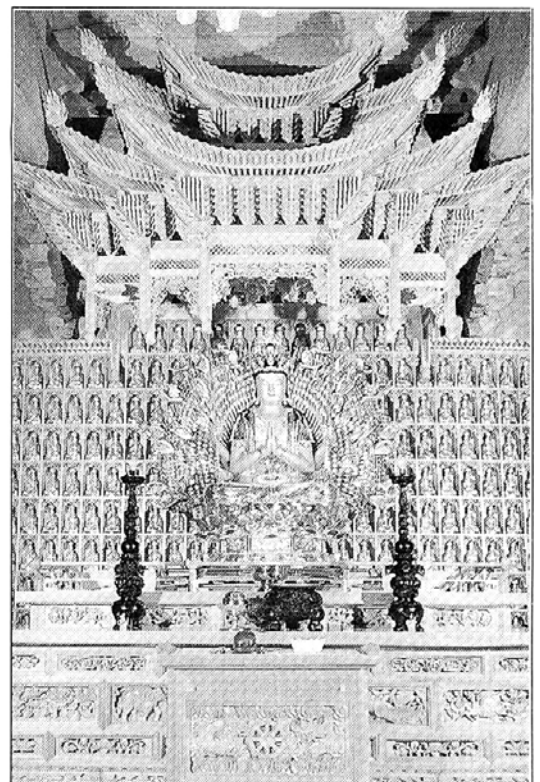
▲인도의 물소는 소가 아니다(신상환 지음)=총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인도를 자전거 하나로 여행한 신상환씨의 기행록. 세계의 골목길 인도대륙. 인도의 결혼식과 풍습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7천원>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업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